

정현복 광양시장, 국비 확보에 구슬땀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국립 광양 소재과학관 건립 등 건의

광양시가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6월부터 시작된 기획재정부 정부예산 심의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5월 25일 중앙부처 방문 이후 세종청사를 다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15건, 8,115억 원을 2021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국도교통부 김동익 도시재생경제과장 등을 면담하고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 광양항 국립 해양산업관 건립 등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개발 ▲광양 마린베이 조성사업 ▲광양항 수소생산기지 조성공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급호동 공모사업이다.

또한 전남도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단 대개조 사업' 사업계획에 ▲제조 소프트웨어 융복합 기반소재?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광양 익신산단) ▲다중소재 레이저활용 제조장비 융합기술 고도화 기반구축(광양 익신산단) ▲이차전지 재활용 표준 인증 플랫폼 구축(명당국가산단) ▲저탄소 연료전지발전 융복합 플랫폼 구축(광양국가산단) ▲스마트 항만 물류 및 SCM 시스템 구축(광양항) ▲스마트산단 에너지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광양항) 등 사업

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98년 순천사무소로 합병되어 장거리 이동 및 민원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어 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와 전라남도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신청 중인 국립 광양 소재 과학관이 광양에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신규사업의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안이 확정되는 8월까지 수시로 부처를 다니며 광양시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수칙 '예방이'가 알려드려요"

순천시보건소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중심으로 매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에는 4개소의 아토피·천식 안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5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토피 피부염 예방수칙 배너 및 동영상 자료를 보급하고 천식 안심키트를 제공하는 등 천식 발작 응급 대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동그라미 유아스쿨 어린이집을 방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있

는 동영상 교육을 마련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했다.

가려워도 긁지 않기, 매일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기, 피부가 촉촉하게 보습제 자주 바르기, 엄마가 만들어 주신 간식 먹기 등 '예방이'와 함께 풀어보는 OX퀴즈를 통해 아이들은 아토피 예방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심기섭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시점이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는 교육 및 체험교실을 통해 순천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아토피 예방수칙을 거부감 없이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삼베 수의(壽衣) 윤달에 판매 급증

보성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윤달이 시작되면서 보성삼베 수의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성읍 봉산리에서 삼베옷을 제작하는 삼베 장인 박영남 씨는 "5월 초부터 전국에서 수의 제작

액(匣)이 끼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조상 묘를 손질 하는 등 그동안 미뤄뒀던 집안일을 처리하곤 했다. 2020년 윤달(음력 4월)은 양력 5월 23일~ 6월 20일까지이다.



박영남 장인은 "누군가 이생에서 마지막으로 입을 옷을 나에게 맡겼기에 내 부모님의 수의를 짓는다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수의를 만들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수의 문화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후학을 양성하고 인간문화재에도 도전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보성 삼베는 전통 방식을 이어 대마(삼)를 수확해 실을 만들고, 배를 짜는 과정 모두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의 한 벌을 만드는 데는 꼬박 이틀의 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100년 지나도 색 바래거나 변하지 않을 정도 내구성 좋아
감촉 매끈 '명품 삼베' 불러... 50년 내공 장인들 직접 제작

을 문의하거나 수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라면서 "수의 제작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로부터 4월 윤달은 '길일 중의 길일'로 꼽아 수의를 장만하려는 사람이 많고, 부정(不淨)과

보성삼베는 100년이 지나도 색이 바래거나 변하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고 감촉이 매끈해 명품 삼베로 불린다. 특히, 삼베를 키우고 실을 뽑는 일부터 수의를 완성하기까지 50년 넘게 내공을 쌓아온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다.

여수시 '거문도해풍속' 드론 이용 친환경방제 호평

32ha 친환경방제 연5회

사업비 5500만원 확보

여수시가 거문도해풍속의 친환경방제 면적 확대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드론을 이용한 친환경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거문도해풍속 재배농가 대부분이 고령화?부녀화로 진딧물 등 병해충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여수시는 친환경방제는 같은 시기에 공동으로 방제해야 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 급년 신규 사업으로 거문도 전 면적에 대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해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금까지 3차례 전면적 공동방제를 완료했고, 6일부터 4차 방제, 오는 11월에 5차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거문도해풍속의 친환경인증 면적은 전년 12.7ha이며, 금년에 17ha, 2022년까지 전 면적 인증을

목표로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문도에서 썩을 재배하고 있는 한 농가는 "시에서 드론으로 친환경방제를 해주어 농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시 특산물인 거문도해풍속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2020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추진위 시동

이문봉 추진위원장 선출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2020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추진위원회가 모습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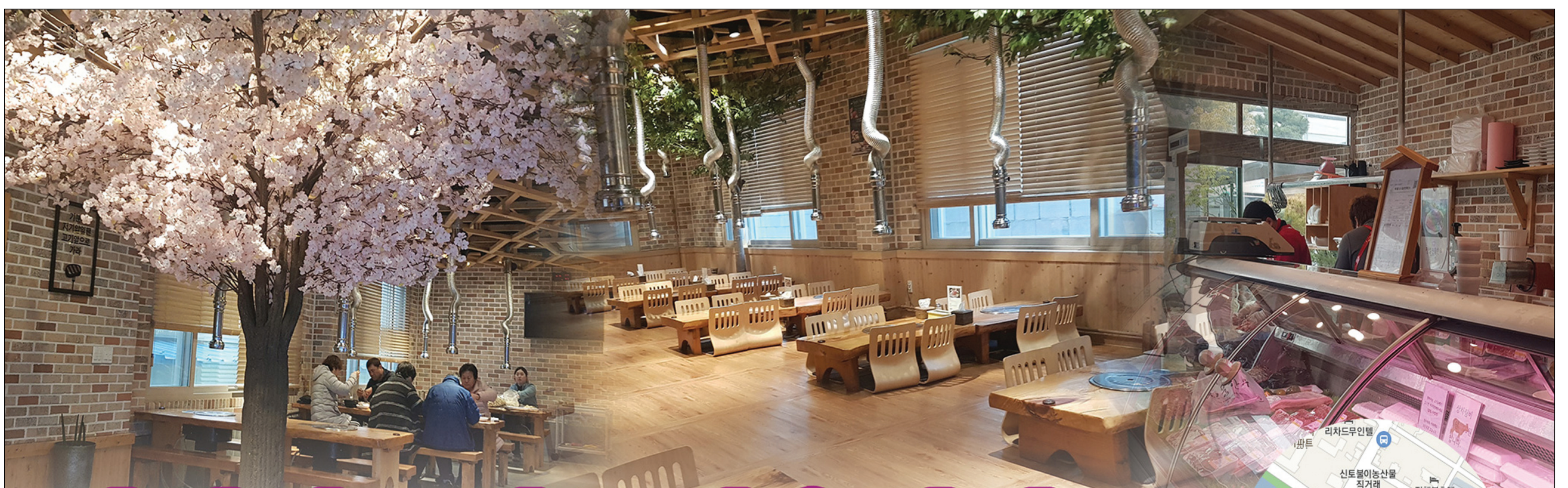
여수시에 따르면 2020여수밤바다 불꽃축제추진위원회 위원 12명이 최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위임 위촉 및 임원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문봉 위원(여수시 참여연

대 공동대표)을 올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과 감사, 사무국장 및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9월 초 개최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된데 이어,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19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 개최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